Non-CME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보니

서 귀 숙 (84, 대뉴욕)

학술대회의 Non-CME 프로그램의 처음 시작은, 전문분야가 CME 프로그램에 직접 관련이 없는 회원들과 배우자들을 위한 교양강좌로, 몇몇 수준급의 취미활동을 하는 연자들의 경험을 듣는 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올해의 강의도 fly fishing, 회화, 의료 봉사활동, 영문 시조, 어원학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깊이 있고도 재미 있는 강의들로 채워졌다. 취미활동의 범주를 훌쩍 넘는 내용으로는 총체적 건강관리, AI에 대한 이해와 실전, 스마트 워치의 기능과 쓰임새에 대한 실전적 고찰 등이 있었다. 각 강의마다, 다년간 매진해 온 강사들의 노우하우와 식견이 녹아 있으면서, 은퇴 후 생활을 이미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의미있는 insight를 선사하였다. 또한 매년 Morgan Stanley의 후원으로 해 오던 투자 강의는 올해는 주식투자와 실물투자의 비전형적인 모델을 소개하여 수개월 째 고전하고 있는 conventional investment industry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는 AI의 현주소를 들을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고 인간의 지능과 능력의 쓰임이 이렇게 축소될 것인가 하는 착잡한 마음이 일기도 했다. 그러다가, 본인의 활동과 회화를 접목시킨 대작들을 감상할 때, 또 젊은 미술 학도들에 의해, 회화와 조소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에 관해서 들을 때면 인간의 지적 능력이 한 가지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19-20세기를 휩쓸어 온 기능, 기술, 과학 분야 이외에 인간이기에 시도가 가능한 영역이 무한히 있음을 느끼면서 AI의 건투가 인간을 위축시키지 않고 인간의 더 높은 차원의 도전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여기서 스토리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 동문의 많은 수가 고령이고 현업에서 물러나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다양한 취미, 학습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현재의 활동들이 그들의 평생의 의사경력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의사로서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도 많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강의를 들으면 우리는 감동한다. 아 이거였구나. 그들은 은퇴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인생의 제1막의 경험을 녹여서 개인에게 또는 인류전체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제 2막의 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이었다. 그 활동은 잉여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생 현역이라는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하며, 소위 '은퇴 후' 인생은 세상을 하직할 날을 카운트 다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형태와 가능성을 카운트 업 하는 것임을 이 non-CME프로그램이 역설하고 있는 것 같다.

훌륭한 강사님들의 노고에 감사해 마지 않지만, 이 프로그램의 모든 기획과 준비, 또 집행은, 다년간 수고해 주신 고 김영애 여사님(71년 졸업 김성환 동문 부인)의 열정과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밝혀 둔다. 여사님의 큰 빈 자리를 제대로 메꾸지 못한 점 용서를 빌며 이 non-CME 프로그램이 학술 프로그램과 발맞춰서 우리 학술대회의 두 기둥으로 해마다 성장하는 꿈을 꾸어 본다.

GLP-1, 면역항암제,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적 도약

박 은 경 (00, 유타)

올해 학술 CME 프로그램의 주제는 〈Breakthroughs in Medicine: Transformative advances in GLP-1, Cancer Immunotherapy, and Artificial Intelligence〉로, 오늘날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 분야의 발전상에 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으로 채워졌다.

첫날의 문을 연 Glucagon-Like Peptide-1 (GLP-1) 세션에서는 당뇨와 비만 같은 대사질환 외에도 노인의학 분야와 알츠하이머병에 있어서 GLP-1 수용체 작용제가 어떤 가능성을 열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고, 이어 면역항암제 세션에서는 피부암, 두경부암, 위장관계암, 유방암, 폐암 등 암 종류별로 어떤 치료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인공지능 세션에서는 전장 유전체 분석, 생체 바이오 마커 탐색, 항암제 개발 등의 분야에서 인공 지능이 이미 얼마나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연구 및 장학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민종(91졸), 박혜성(06졸) 동문이 진행한 젊은 연구자 상 시상식이었다. 한승신 동문(76 졸)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이 연구상의 첫 수상자로는 생식세포 및 체세포의 유전적 변화가 폐섬유화증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의 병태생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윤정현 동문(06졸)이 영예를 안았다.

둘째 날에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일곱 명의 동문을 패널로 초대하여 미국에서의 경력 계발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 삶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세권 동문(01졸)의 유느님 같은 유려한 진행과 후배들의 고민어린 질문에 패널들은 열정, 눈물, 땀, 인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내었다. 곧이어 허원제(02졸) Green Project 위원장의 사회로 재학생 및 최근 졸업생 열 명의 연구 구연 발표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하였다. 본 동창회의 후원으로 현장에 직접 참석한 발표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발표자들도 화상회의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발표와 질의응답을 할 수 있었다. 발표자들의 탁월한 연구 내용과 발표력에 청중에 앉아있는 선배들은 격려의 박수와 논평을 아끼지 않았다.

오랜 기간 정성을 기울여 학술 프로그램을 조직한 장세권(01졸) 위원장, 채영광(02졸) 부위원장, 김종오(04졸) 부위원장의 기획 의도 대로 이번 학술 대회는 다채로운 내용이 의료 혁신이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 통합적으로 조망되었으며, 최신 지견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문들 사이의 인적 교류와 연구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역동적인 현장이 되었다. 한국이라는 둥지를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택한 미국에서 만나 전공과 나이를 불문하고 서로를 재발견하고 유대감을 쌓아가는 동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북미주 동창회 연례 학술대회가 언제든 돌아와 마음 편히 모이고 나누고 쉴 수 있는 고향 집 같은 우리들의 사랑방이 되기를, 매년 더 많은 수의 동문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올해에도 풍성하고도 원활한 학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